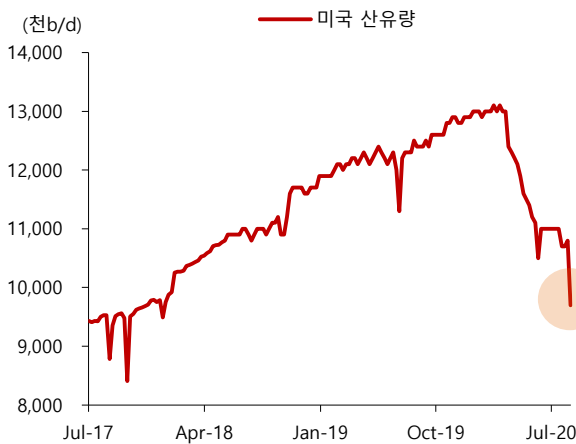


## 허리케인에도 유가가 떨어진 이유

▶ 미국 허리케인 로라 영향으로 산유량 970만b/d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,000만b/d 하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약세 이유는 역시 STEO의 산유량 전망에서 알 수 있듯 공급과잉 부담 여전하기 때문. 연중 약세 지속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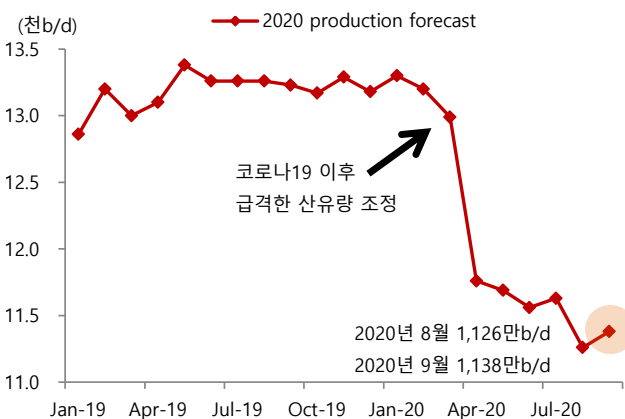
### 8/28 미국 산유량 급락에도 유가가 약세인 이유는...



자료 : EIA, SK증권

- 유가가 이번 주 들어서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
- WTI 기준 8/26 \$43.4/bbl을 기록하기도 했던 유가는, 지난 9/8 \$36.8/bbl까지 하락하면서 하반기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죠
- 주 초반에 유동성이 위축된 국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, 사실 최근 미국 석유 데이터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약세는 의문부호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
- 무엇보다 미국에 불어 닥친 허리케인 로라의 영향으로 산유량이 꺾인 데이터는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었습니다
- 8/28 기준 미국 산유량은 970만b/d로 발표되어 2018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,000만b/d를 하회하기도 했으니깐요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?

### 역시 지속적인 공급과잉 압박에 대한 부담으로 해석



자료 : EIA, SK증권

- 허리케인 로라로 인한 피해규모가 덜 한 탓도 있고, 사우디OSP가 하락한 탓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fundamental에 대한 불안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
- 대표적으로 9월 9일 발표된 EIA의 STEO(Short Term Energy Outlook)에서 2020년 산유량 전망치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
- 지난 달에 1,126만b/d를 예측했는데, 금번 9월에는 1,138만b/d로 발표되었죠
- 즉 로라가 지나가면 미국 업체들은 다시 산유량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셈입니다
- 수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. 정제마진은 연간 내내 적자 영역이고, 정유사 가동률도 회복되었다 치지만 여전히 80%를 넘기가 버거우니까요
- 계속되는 공급과잉 부담, 아마 유가 상승 기대는 어렵지 싶네요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 
 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 
 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 
 •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 
 •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 이상 → 매수 / -15% ~ -15% → 중립 / -15% 미만 → 매도

